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연예술 1단계 쇼케이스 전문심사 총평

“지역 콘텐츠와 일상에 대한 탐구 자세 돋보여”

심사위원 김일송, 신동호, 송현민

서류 심의와 실연 쇼케이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1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지원된 작품들의 성향을 두루 살피고, 현실 가능성, 예산, 준비 기간,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 능력 등을 검토하여 심의했다.

지원작들은 전통예술, 뮤지컬, 연극의 여러 장르였는데, 현대인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차용하거나,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작품에서 만나게 하는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작품들이었다. 지원 단체의 대표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획과 무대 위에서의 기량들을 발휘했다.

심사에 임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공연예술은 각 장르의 기준과 형식을 따르면서도, 창작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흡수하고 발현하는 중이다. 따라서 지원작들이 품고 있는 창작 경향을 살펴보며 굵은 원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탐색해나갔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심의 동안 작용했는데, 이는 공연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현실성), 예산과 작품 규모·성격 비교, 창작력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서류 심의를 통해 작품들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꼼꼼한 준비 속에서 작성된 서류들이었으며, 작품의 윤곽을 잘 잡은 설계도와도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 만들기’는 쉬우나 ‘몸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처럼, 이상적인 무대 구현은 좋으나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지원작들은 제외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 진행될 쇼케이스 심의나 재단과의 연계 및 소통 가능성을 잘 지니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쇼케이스 심사의 경우는 지원단체들은 서류 심의와 달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쇼케이스 공연을 위해 '발췌'한 부분들로 엮되,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작품 전체'를 가늠하고 상상하게 해야 한다. 이때 작품의 성향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원 단체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리고 쇼케이스는 실연에 못지 않은 연습과 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하지만 실행자들의 연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역할에 걸맞은 실행자를 아직 구하지 못하여 대체 예술가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과 상기한 여러 기준을 토대로 심사에 임했다.

심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남은 점은 지역성과의 연계였다. 물론 지역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전면 흡수하여 창작하거나, 중요 소재로 삼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적어도 현실과 장소성의 반영물이라고 할 때, 특히 지역 거점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지역적 소재에 대한 탐구나 아니면 지역 관객들이 예술을 통해 삶과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환기적 역할을 하면 좋다. 이러한 배려와 신경이 작품에 녹아들 때, 작품만의 개성은 물론 본 사업도 빛을 발한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작품들이었다. 지원자들은 작품에 녹여넣을 수 있는 지역 콘텐츠나 일상에 대한 탐구 자세가 돋보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연계와 호흡하는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에 공연 제작비와 인건비 등의 단가가 상승하면서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본 사업과 지원자들의 예술성이 돋보이고 상생할 수 있는 작품을 남겨주길 바랄 뿐이다.

2023. 10. 21